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차진솔 비서관 (이용우 국회의원실)	연락처	010-5444-3790 (lywchosim@naver.com)
----	------------------------	-----	--

민주, 인천에서 한국GM과 미래차 생산 논의 착수 ... 한국GM노조와 정책협약 체결

- 민주당 선대위 -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협약식
- 5월 27일(화) 17시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유동수 · 박선원 · 이용우 국회의원
- 자동차산업 · 일자리 지속가능성 위해 GM에 미래차 생산 확대 촉구
- 민주 “GM 본사도 한국사업장에서의 미래차 생산 로드맵 제시해야”

27일 오후 17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는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한국지엠지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동수 국회의원(인천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박선원 국회의원(인천선대위 부평(을) 선대위원장), 이용우 국회의원(중앙선대위 노동본부 부분부장)이 참석해 한국GM과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지를 모았다.

정책협약서에는 ▲2018년 산업부-GM 간 체결한 미래차 · R&D 관련 MOU협약 이행 점검 ▲한국 자동차의 시원(始元)인 인천 부평구에 자동차산업 역사박물관 건립 등 현안들이 담겼다.

협약을 체결한 안규백 한국지엠지부장은 “한국GM은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

정부로부터 8100억원의 지원을 받는 대신 2027년까지 한국GM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고 말하며 “2027년에는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정부에 또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은 “한국GM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2018년 당시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국회 정무위에서 잘 관리하겠다” 면서 “2018년 MOU 체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국GM 유지 약속기한인) 2027년을 대비한 논의 테이블을 가져가야 한다” 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중앙선대위 전략본부 부분부장인 박선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정보위)도 “한국GM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면서 “필요 시 정부도 지원을 하겠지만, 그보다도 글로벌 GM(본사)의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본사의 책임있는 조치, 그리고 노조와의 계획 공유가 필수적”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용우 노동본부 부분부장은 “한국GM 문제는 모든 인천 국회의원들의 주요 관심사” 라면서 “협약서 내용 이행뿐 아니라 그 이상의 현안들까지 책임있게 챙겨, 한국GM 노동자들의 미래 걱정을 덜겠다” 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지분의 17.0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

[붙임 1. 정책협약서]

[붙임 2. 협약식 현장사진]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협약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와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래의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다.

1. 한국지엠 등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미래차 생산 등)를 위한 당정 T/F(인천지역구 의원 및 노동조합 포함)를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2. 외투기업(한국지엠)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부 지분에 따른 산업은행 이사 추천권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내 상장사 기준과 동일하게 외투기업(한국지엠)도 ESG경영 연례보고서(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 및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4. 외투기업(한국지엠) 공급망에서 노동 인권과 기본권 실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5. 2018년 5월, 한국지엠 공급망(부품사) 원·하청 상생협력과 핵심기술역량 축적을 위해 산자부-GM-한국지엠 간 체결한 MOU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6. 한국 자동차산업의 시원인 새나라자동차·신진자동차 제조 생산공장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자동차산업(노동)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2025년 5월 27일



지부장
안 규 백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 본부장
김 영 훈

